

다산포럼

봄바람이 길어오는 희망의 흙씨들



유지나
동국대 교수

봄바람이 차갑다. 웅웅대며 깃가를 뿜도는 바람이 꽃샘추위 바람만은 아니다. 봄이 10년마다 2.6일씩 앞당겨 온다는 기상청의 발표 속에는 산업화가 작동한 지구 생태계의 아픈 그늘이 드리워 있다.

습기 불편한 황사 도시 한구석에서 만난 '제네시스:상의 소금'(2014)은 희망의 숨쉬기를 모색하는 다큐멘터리다. 브라질의 금광 세라 펠라다를 찍은 사진 이미지로부터 강렬한 감동을 받은 빔 벤티스는 사진작가인 세바스티앙 살가두의 인생 역정을 따라잡는다.

거대한 구덩이 세라 벨리다에는 금을 찾을 욕망에 모여든 5만여 인간들이 사다리를 탄다. 목숨을 내건 위험도 감수하면

서 부자가 되고픈 욕망에 끌려 노예처럼 자신의 몸을 부리는 이들의 이미지는 인류의 욕심을 관통한다.

1960년대 브라질 군사독재에 저항하다 도망치듯 프랑스로 이주해 경제학을 공부한 살가두는 국제커뮤니티에서 일하며 아프리카 출장을 가게 된다. 그러나 그는 경제개발 연구보다 아프리카 이미지에 매혹된다.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겪는 처참한 모습에 대한 끌림이다.

카메라를 든 그는 '노동자들', '이민자들' 프로젝트로 수많은 사진상을 수상했지만, 인류는 생존할 필요도 없는 종족이란 절망감에 빠져 버린다.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그를 살려낸 것은 지구 생태계의 발견이다. 그가 8년간 카메라를 들고 노마드로 떠돌며 찍어낸 이미지들, 그것은 인간이 산업화로 망쳐놓지 않은 오지, 아마존 열대우림, 북극 등지에서 잡아낸 원초적인 자연이다.

이 땅에서처럼 군사독재 아픔으로 시작된 그의 전복적 진화에는 노스텔지어까지도 작동한다. 독재정권 해체 후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악어들과 같이 수영하며 놀던 곳, 자급자족으로 살던 낙원 같은 곳은 사라졌다.

“수십년간 잘려져 나간 나무들, 그 곁과 물이 사라진 죽어버린 땅에서 그는 유년의 기억을 되살려 나무를 심는다. 처음에는 많은 씨앗들이 죽어갔지만 10여년 세월이 흐르며 200여 만 그루 숲이 조성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기적은 매혹적인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은 사람'(1987)을 떠올리게 한다. 황량한 삶에 지친 장 지오노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산악지대로 여행을 떠난다. 사흘을 걸어도 황폐한 벌판, 버려진 별동처럼 폐허가 된 집들의 잔해를 보며 헤매던 그는 양치기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난다. 개와 함께 양을 치며 사는 노인의 일상이 작품의 핵심이다.

간소한 살림 도구를 갖춘 작은 집에 사는 그는 도토리를 한 알씩 수차례 점검해 알찬 100개를 모아놓은 후 잠든다. 다음 날 그는 한참 산등성이로 걸어 올라가 메마른 땅에 쇠막대기로 구멍을 내고 도토리를 넣은 후 구멍을 덮는다.

“여기가 당신 땅이야?”고 묻자, 그는 아니라고 답한다. 메말라 보여도 깊은 곳에 습기만 있다면 나무가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 속에 도토리를 매일 심는 게 그의

인생길 가기이다.

도시로 돌아온 지오노는 다달이 월급을 걱정하며 살다가 다시 프로방스 산악지대를 찾는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다. 양치기 엘제아르 부피에가 심은 나무가 이룬 숲, 거기에겐 샘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정부 시절단은 이곳을 천연의 숲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러나 그 뒤에 홀로 매일 도토리를 심던 부피에를 기리며 장 지오노는 글을 남겼다. 그에 감흥을 얻은 프레데릭 벵은 실명을 무릅쓰며 작품을 만들어냈다. 지구 생태계와 함께 사는 열정을 나누고픈 예술의 힘이 작동한 것이리라.

이런 기적은 유럽이나 브라질 산골만의 일은 아니다. 분단 70년을 자연과 함께 가리는 일이 가능하다. 한반도 하리를 가로지르는 248km DMZ 비무장지대, 인간의 발길이 끊긴 그곳은 3000여 종 생물이 살아남은 생태계 보고이다. 이곳을 '생태평화공원'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지금도 살아있다.

운동주가 절망 속에서도 노래한 '봄'의 한 구절처럼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돌, 시내 가치운 언덕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와 함께 살아가는 희망 속에 봄을 맞는다.

정춘 특·특

대학생도 애착관계가 필요하다



육예은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3학년

가 태어난 아기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대뇌를 정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눈을 마주보고 부드럽게 안아주거나 토닥여주는 등 사소한 접촉들을 통해서 아기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정된다. 특히 엄마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접촉은 아기의 두뇌와 정서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는 비단 유아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낯선 환경의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애착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대학생은 스스로 알아서 주체적

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최소한 내 경험으로 그렇다.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해결해보는 주체적인 삶을 대학 입학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른 채로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 갖고 사는 게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삶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깨닫게 된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 방황과 혼란,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며 그 시기를 잘 극복하는 친구도 있고 또는 스스로 절망하기에 이르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대학들은 교수의 계획적인 수업활동을 통한 공식적인 배움의 과정을 중시하면서도, 대학생활에서 대학생이 느낄 수 있는 문제와 고민들을 파악하고 올바른 길로 제시해주고, 홀로 설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잠재적

인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있다. 송원대학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SW-CDP)이 대표적이다.

이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높이고, 독특한 학교생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인, 실천인, 창의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7~8명으로 이뤄진 학생그룹과 책임지도교수가 함께 팀을 이루어 활동한다. 그래서 학생과 지도교수와의 친밀감이 매우 높다. 인생을 앞서 살아온 교수는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배웠는가를 자세히 알아보고 학생들의 교육, 생활, 진로, 경력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문화 활동 및 취미활동 같이하기 등을 주제로 매주 한 시간씩(1학기-15주, 2학기-15주) 지도교수와 학생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지도교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는 마치 길을 못 찾는 양에게 갈 길을 제시해주는 목동과도 같이 고맙고 소중하다.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누구보다 꿈과 열정이 넘쳐났지만, 막상 마음 한 구석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

해야 되는지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어린 양에게 지도교수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다듬어 주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아주었다.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폭도 넓어져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자신의 경력개발에도 힘쓰게 되었다. 지도교수와의 친밀감은 또한 선후배 간의 애착관계로 이어진다. 지도교수가 같은 선후배가 자연스럽게 멘토, 멘티가 되어 대학 생활을 적응할수록 조언해 주고, 학습 노하우를 전수하며, 직업적성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준다.

아무 것도 모르던 새내기가 이제는 어느덧 3학년이 되었다. 넘어지고 넘어지며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지나 지금은 홀로 설 발판을 마련하고 내 길을 찾아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배우고 실천한 경험들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온전히 나눠주고 싶다. 지도교수님과 선배들에게 받은 선물을 후배에게 나눠주는 내리사랑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애착관계가 만든 소중한 선물들이...

社說

스쿨존 안전 무방비 등하교 불안한 학생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쿨존이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운전자들이 과속 운전과 신호 위반을 하기 일수인데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일부 학교 주변에서는 잇따른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등굣길에 불안하다는 것이다.

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표시가 확인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 운행하는가 하면 횡단보도에에선 황색 신호등이 켜져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차량들이 많아 학부모의 입장에선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정된 스쿨존은 광주 571곳, 전남 1000곳으로 모두 1571곳에 이른다. 하지만 스쿨존에 '어린이 보호구역 30km'라고 쓰여 있어도 제한속도 30km를 지키는 차는 보기 어렵다. 지난해 스쿨존 내 신호 위반 건수도 무려 28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광주 20건, 전남에선 21건이나 발생했다.

그런데도 운전자의 안전의식은 달라지지 않고, 경찰의 단속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가 신호 위반과 과속에서 비롯되지만 스쿨존 사고는 출지 않고 있다. 신호·속도위반 등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광주 6곳, 전남 2곳에 불과하고 경찰의 단속·홍보도 학기 초에만 집중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 일부 학교는 개학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300m 이내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곳만 61곳이나 된다. 안전사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는 인지발달 능력이 형성되지 않아 위험을 느낀다 해도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운행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도 이런 이유다. 경찰은 단속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도 학교 주변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광고총량제 지상파방송 공익성 해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하려는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방송의 공익성이 저해되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해칠 뿐 아니라 정상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총량제는 방송사의 전체 광고 허용량만 법으로 정하고, 광고 시간·횟수·길이는 방송사가 자율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는 현재 1시간 프로그램에 6분까지 할 수 있는 광고를 9분까지 늘릴 수 있다. 예컨대 1시간에 최대 247회의 광고가 붙는, 인기있는 예능프로그램의 광고는 36개로 늘어난다.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방송의 공공성 훼손은 불가피하다. 방송사마다 품질은 안중에 없이 상업성이 절고 광고가 많아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선정적인 오락 프로그램 등이 난무할 것이다.

규제 완화가 국민의 편익에 맞춰져

야 하는데 방송사의 수익만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독과점적으로 무료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에는 잣대가 더욱 엄격해야 함에도 광고총량제는 그런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광고주의 81.7%가 신문 등의 광고비를 줄이고 지상파로 옮겨갔다고 밝혔는데 매체 불균형도 심화될 것이다. 미디어의 중요한 축인 신문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등 미디어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해지면 결국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방통위의 움직임에 대해 지상파를 잡아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방송사의 배반 불려주는 밀실담화(密室談話)서 현 정부의 또 다른 실정(失政)이 될 수 있다. 관련부처는 물론 관련 업계 등을 망라해 공과대 형성의 과정을 다시 거치고, 다수의 여론부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

無等鼓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외운 마을 산 111번지에는 금실 좋은 '부부'가 산다. 자그마치 500여 년을 해로(僭老)했다. '지나기엔 구름도 힘이 들어 아예 드러내지 않겠다'는 지리산 기슭 외운(臥雲) 마을에 있는 '천년송'(千年松) 이야기다.

외운 마을은 뱀사골 입구 반산 매표소에서 계곡을 따라 3km가량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해발 640~680m에 위치한 오지 마을이다.

뽕나무를 막아 주는 마을 복쪽 산줄기에 우람한 소나무 두 그루가 20m 간격을 두고 서 있다. 소나무는 은행나무와 달리 암수 한 몸인데도, 언제부터인가 주민들은 비탈에 선 아래쪽의 예쁜 소나무를 '할매'(할머니) 소나무, 위쪽 소나무를 '한아씨'(할아버지) 소나무라 부르며 섬긴다.

수년 전 이 '지리산 천년송'과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민중가요 '상록수'의 한 소절이 연상됐다.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시련을 겪어온 우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휴식할 때 민중가요 '상록수'의 소절이 흥성해 지기를 기원합니다...상향(尙尙)."

제(祭)가 끝난 후 할머니 한 분이 양팔을 한껏 벌려 '할머니 소나무' 동지를 깨우는 채 오동탕안 서 있었다. 마을 주민들을 지켜 주는 '지리산 천년송'의 '맘껏 푸른' 자태를 오래도록 보고 싶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지리산 천년송(松)

삶의 질 높이는 빅데이터 활용

기고



임성수
전남도청 정보기록담당

지난달 전남도청에서는 지역대학교수와 지역 정보통신기술(ICT)업체, 빛가람 혁신도시에 최근 동자를 한 한국전력공사 ICT기획처 등 정보화전문가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전남도에서 추진할 5개분야 68개 사업에 대한 정보화추진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도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만 정리해보면 우선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고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립한 186개 단위 마을의 주민 2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정보화 마을을 위한 것이다. 정보화 교육과 전자상거래 확대,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등이 포함됐으며, 2017년까지 3230개 마을에 도·농간 정보통신 인프라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등 5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어촌지역에서도 영상전화와 IPTV수신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방범, 주차관리, 재난·재해, 어린이 보호 등 기능별 CCTV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17년까지 국비 등 26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2개 시·군에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CCTV를 관제하면서 범죄 등의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상주 경찰이 경찰관서에서 출동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의 어린이,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강력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층, 다문화가정을 위해 사랑의 그린 컴퓨터 보급과 계층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 등을 위해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남도 인터넷 중독대응센터를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가정방문 상담 등을 위해 전문상담사 140명을 양성해 2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3만1000명에게 인터넷 멘토링 교육을 나서기로 했다.

최근 사이버범죄 등에 악용되는 개인 정보 관리체계 강화와 해킹, 악성코드, 웹 취약점 공격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사이버 침해대응센터를 24시간 상시근무체제도 도입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방행정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과거에는 문자나 숫자 등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졌으나 이제는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빅데이터가 공공부문에서 활용될 경우 사회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책 기획과 수립, 결정이 정확해지고 의사결정은 물론

추진·평가에서 투명해지며 제대로 주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맞춤형 도정도 가능할 것이다.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최적화 사업이 성공 사례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지자체에서 적용가능한 사례는 물론 아니다. 국가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민·관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하되 다만 중앙부처의 협조를 받아 선도적 시범사업에 나설 필요는 있다.

전남도는 이미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 천혜의 자연자원인 섬과 숲을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민간자본 및 기업의 유치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꿈꾸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과 관련된 정책이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집대성된 정보에 기반한다면 그 성과는 더 클 것이다. 빅데이터 활용에 전남도는 물론 각계 전문가, 도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